

韓國 女性의 결혼전이 時期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 1940, 50년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to Marriage of Korean Women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李 寅 洙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Lecturer : In Soo, Lee

본 연구는 韓國 女性의 결혼전이 시기에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구조의 다차원적 요인의 영향력을 추정하려는 것이다. 총 634명의 1940, 50년대 코호트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40년대 코호트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 때 결혼을 늦게 하고 장녀인 경우에는 제 때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코호트는 다른 집단에 비해 性比와 취업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 때 결혼을 일찍하고 父의 직업이 하위직이고 결혼전 취업년수가 길 때 늦게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緒 論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결혼을 언제 하는가 하는 문제 즉, 결혼전이(transition to marriage) 시기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個人的 측면에서 개인의 전이(transition)¹⁾ 시기는 생애과정상 그 이후의 여러 전이(부모가, 취업, 은퇴 등)의 기반이 되므로 사회적 시간표(social timetable)²⁾ 상에서 크게 벗어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한편, 社會的 측면에서 여성의 결혼연령은 부인의 가임(可任)기간 및 출산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회의 인구구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차후의 주택수요 측면이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순, 1972).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결혼以後의 자녀양육·고등교육·취업 등의 활동시기와 가능성 그리고 수행능력에 있어서 다양한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개인의 결혼전이 시기가 단지 결혼당사자의 선택이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

1) 전이(transition)란, 집을 떠나고 결혼하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부모가 되며, 은퇴를 하는 등의 以前보다 더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진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전환점을 의미한다(Elder, 1984).

2)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규범적 시간표가 연령기대나 규범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Neugarten, Moore & Lowe, 1965).

* 본 연구는 이인수(1994)의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발췌한 것임.

규범³⁾이나 수입·기회비용과 같은 경제적 조건, 신체적외모나 가임(可妊)능력의 생물학적 조건, 性比 등의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서 또는 결혼이외의 다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전이 시기는 사회 규범상 결혼을 할 연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속한 가족내 집합적 변화나 거시적인 사회·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결혼전이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결혼연령이라는 것을 단순한 인구학적 변인만으로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복잡성과 심오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각의 확대가 서구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Allen & Pickett, 1987; Coony & Hogan, 1991; Hogan, 1978; Marini, 1978; Waite & Spitze, 1981).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연령의 변화가 사회의 제반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사회변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맥락하에서 1940, 50년대 코호트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구조적 측면의 多次元的 요인의 영향력을 추정해 보려는 것이다.

II. 理論的 背景

1. 생애과정 관점과 결혼전이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 유형의 변화를 개인, 가족, 사회 등의 多次元的 맥락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이들 차원이 어떻게 상호관련되는가를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통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생애과정 연구들은 생애 있어서 연령형태의 다양성 즉, 같은 연령의 사람들은 생애과정상의 주요 사건(결혼, 직업, 부모기 등)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 생애과정에서의 변화에 가족이나 친족이 주요 원인이며 이와 함께 역사적 변동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었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가족변화는 가

족원의 생활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보다 큰 환경이나 공동체에서의 역사적 변화를 다양하게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령(age)과 시간(time)을 결합하였다. 이 같은 결합은 가족원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연령구조와 그들이 위치해 있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파악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Elder, 1984).

시간의 과정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생의 전이(life transition)개념을 활용한 생애과정관점에서는 개인의 전이와 가족전이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생애과정 관점의 생의 조건성(contingent lives) 假定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Hagestad(1984)에 의하면, 생의 조건성이란 가족을 상호조건적인 일련의 개인생애가 모여 이루어진 단위로서 그 구성원들이 가족 속에서 생의 기회를 공유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다(한경혜, 1990a). 즉, 개인은 가족내의 변화를 통해서 변하고, 가족은 개인의 변화를 통해 함께 변화를 겪는다는 것으로, 이 과정이 동시발생적이든 혹은 연속적이든간에 생애과정관점의 중요한 모델로 나타난다(Elder, 1984). 예를 들어, 개인이 결혼할 시기라해도 그 가족이 처한 상황과 다른 가족원의 전이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혼전이 시기가 가족에 따라 달리 나타나거나 역사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결혼전이시기의 코호트분석

출생동시집단 즉, 코호트(cohort)는, “동일한 시간대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개인들의 집합체”를 뜻한다. 사회변동은 각 연령층에서 연속코호트(successive cohort)가 以前の 코호트와 구성이나 행동면에서 서로 다를때 일어난다(Ryder, 1965). 예를 들어, 1940년 코호트는 그들이 11세가 되는 해(1950년)에 6.25를 체험했고, 21세가 되는 해(1960년)에는 4.19를 체험했다. 이들이 겪은 6.25와 4.19의 체험은 그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 그들과 다른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들과는 상이한 모습을 나타낸다.

결혼전이 시기가 코호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기 위해서 생애과정관점에서는 여러 코호트들이

3) 연령규범(age norm)은 개인이 각각의 역할이나 지위를 갖게 되는 표준연령에 관해 널리 공유하고 있는 판단을 뜻한다(Lawrence, 1988).

갖게 되는 역사적 맥락의 두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Mason et al., 1973; Riley, 1973). 첫번째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로서, 이는 특정 코호트내 결혼전이 유형에 변화를 가져 오는 코호트 구성에서의 변화를 뜻한다(Uhlenberg, 1979). 코호트들은 각자 귀속된 지위의 크기와 구성이 처음부터 다른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며, 이러한 코호트간의 차이는 성장과정 동안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변화에 의해 더욱 달라지게 된다. 코호트간의 크기나 구성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는 우선적인 요인은 출산률과 사망률이며, 그외 하위집단(성별 또는 한 사회계층에서의 변화가 크면)의 변동률에 따라 코호트의 구성도 다르게 된다. 두번째는 코호트들이 어느 한 연령층을 이루는 시기와 관련된 시기효과(period effect)로 이는 한 연령층을 이루는 동안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이 코호트의 결혼전이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공황과 비교하여 활발한 경제발전은 결혼시기나 혼인률, 자녀출산률, 고용률에서의 전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Uhlenberg, 1979).

이러한 코호트간 분석은 전이 행동이 고려되고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혼전이시기 유형을 파악하는 주요 예측치로서 유용하지만 코호트내에 존재하는 집단간의 차이를 간과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코호트내의 변화 또한 생애과정 관점에서 결혼전이 유형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분석 작업이다(Shehan, 1992). 같은 코호트내에서도 사람마다 초기 생의 역사가 다르고 계층, 인종 배경, 지역사회 유형에 따라 역사적 사건에 다르게 직면하므로 중요한 차이를 낳게 된다(Hareven, 1978b). 따라서 결혼이 빠르고 늦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정 코호트 맥락에서 조사되거나 한 코호트가 다른 코호트들의 경험에 견주어질 때만이 의미가 있다(Moell et al, 1978). 본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시기를 분석하기 위해 연속코호트에 초점을 둔 것도 역사적 사건이 여성의 성인초기 전이를 이루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해서이다.

3. 결혼전이 시기에 미치는 諸요인

1) 사회구조적 요인

역사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경제적·사회적·인구학적 상황은 부분적으로 특정 전이를 하는 데 적용되는 자원이나 기회를 정하게 된다. Modell등(1978)은 경제적 생산성과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대공황때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1915~1918년 코호트의 경우 결혼이 늦어진 반면, 戰後의 활발한 경제회복기에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1925~1928년 코호트의 경우 높은 취업률과 함께 결혼연령이 낮아졌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로 인한 취업구조의 변화는 離村한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을 농업생산의 주된 활동자로 만들거나 저임금의 공식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15~24세 여성의 도시이입을 촉진하면서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여성의 생애과정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상 여성의 취업구조와 개인의 결혼전이 시기를 연계시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 중 가장 현저한 변화중의 하나가 都市化로서, 결혼연령과 관련해서 볼 때 도시화가 증가할 수록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애, 1993; 최 순, 1972).

한편, 1960, 70년대의 높은 교육열과 취학률의 증가도 여성의 결혼전이에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남자에 비해 여자의 진학률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여성교육의 신장으로 결혼전이 시기는 늦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연령의 변화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김유경, 1990; 양재모 외, 1980; 최 순, 1972)에서 이 시대 코호트들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거시적 사회구조 요인중의 인구학적 구성, 그중에서도 性比는 특정 코호트의 특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결혼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0년대 후반 인구학적 현상중의 하나인 베이비 붐(baby boom)을 초래하게 된다(최 순, 1972). 베이비 붐 시기에 태어난 女兒들은 1970년대 후반에는 거의 대부분이 20~24

세로 결혼적령기에 도달하게 된다. 당시 결혼연령차가 통상 4~5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잠재적 배우자는 대체로 25~29세로 대부분이 출산력이 저하된 한국동란의 와중에서 태어난 코호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이 두 남녀 코호트간의 인구수 즉, 性比의 불균형은 1970년대 후반 사람들의 결혼행동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산업화와 함께 결혼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배경과 인구학적 구조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관련된 가족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족적 요인

(1) 가족주의 가치와 결혼전이 시기⁴⁾

한국사회의 변동 속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불안정한 사회에서의 주요 원리이자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편성되어 왔고(조혜정, 1985), 빈곤과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았던 세대에게는 어떠한 외부적이며 강제적인 힘에도 침해받지 않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기대가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김명혜, 1988).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는 정치적 상황과도 접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1960, 70년대의 산업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는 개인이 분화되어 개인주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근대적 태도가 형성될 여건이 마련·확대되었지만 이러한 구조상의 변화는 다른 측면에 의해 상쇄·충돌되었다. 경제성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정을 강조한 제3공화국에서는 자발적 결사체나 이익집단이 형성될 수 없었다(한상진, 1982).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는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 비조직적으로 해결해야만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주의 가치는 그대로 존속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

4)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가 집합적인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주의 가치는 개인의 생애발달상 아동기초기부터 가족 내부에서 내면화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족주의 가치를 가족적 요인에 포함하였다.

최근 新社會史의 결혼연령, 출산력, 혼전동거, 시리적 이동, 취업 등에 관한 연구들은 산업화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결코 격리된 개인의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서선희, 1991a). 예를 들어, 사회의 제반 여건과 상황은 불가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으로 인한 가족내의 상호의무와 요구는 가족 전이 시기에 심각한 압력을 가했고, 명백히 개인의 선호가 가족의 집합적 시간표와 충돌될 때에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럴 때 집합적인 가족 결정이 개인선호보다 우선하여 아이들은 어린 동생이나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결혼을 늦추거나 결코 결혼하지 않는 등, 개인의 전이는 방위가족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Hareven, 1984).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가구경제상의 변화에 대한 가족의 반응에 있어서 성역할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와 더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가족중심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결혼전이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는 결과가 여러 연구(Allen & Pickett, 1987; Elder, 1974)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조적으로 딸이 빈곤가정의 생계를 더 일찍,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책임지도록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생존전략은 시대나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달라 나타나는데 즉, 막을 것이 귀하던 옛날의 농가에서는 딸의 조혼이 장려되었지만 딸이 주요한 생계수단이 된 도시 빈민가족에 있어서는 딸의 혼인이 지연 품목으로 나타났다(조 은, 1990). 이와 같이, 한국의 1960, 1970년대의 산업화과정의 관료적 권위주의 성격을 띠는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가족주의 가치가 존속케 하는 기반이 되었고 이러한 구조적 기제는 불가분 여성의 결혼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방위가족(family of orientation)의 특성

공동체나 가족배경과 같은 요인들도 개인의 결혼전이시기와 관련되는데(Coony & Hogan, 1990; Elder, 1974; Waite & Spitze, 1981), 여성이 결혼하기 前 父의 교육이나 직업수준은 그 당시의 사

회계층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결혼은 중·상류층에서보다는 하류층에 있어서 더 많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Carlson, 1979; Waite & Spite, 1981), 오히려 조혼은 하류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Elder, 1957).

한편, 출생순위와 결혼연령과의 관계에서 한경혜(1990a)는 부유한 가정에서는 장남이 차남이하보다 일찍 결혼하는 반면,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에서는 차남이하의 아들이 장남보다 더 일찍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출생순위와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극히 드물다.

부모의 생존여부도 결혼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편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불행하고 복잡한 환경으로부터의 도피처로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ldscheider & Waite, 1986).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성별, 인종,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Coony & Hogan, 1991).

3) 개인적 요인

결혼전이 시기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발달상의 여러 경험을 알아야 하는데 개인의 생리학적, 심리적 발달의 지표를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 경험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근대화에 부응하는 근대 교육제도의 도입은 교육수준을 상승시켜 결국 결혼을 지연하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교육수준과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비교적 정적인 상관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결혼을 지연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oony & Hogan, 1991; Goldscheider & Waite, 1986; Waite & Spitze, 1981).

직업과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 직업은 매력적인 결혼상대자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일찍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ite & Spitze, 1981). Schoen과 Urton(1979)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잠정적으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고 가족수입에 미치는 공헌도가 결혼시장에서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므로 결혼을 일찍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교육기간이나 직업이 갖는 대안적인 매력이 오히려 결혼을 늦추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Waite & Spitze, 1981). 한국의 경우도 개인적인 여러 요인들이 결혼전이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1차 세계출산력 조사를 재분석한 연구(이영훈, 1977: 양재모 외, 1980; 김유경, 1990)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취업연수가 길 수록 결혼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研究設計 및 方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대상인 코호트I(1940~49년 출생)은 일제해방기, 코호트 II(1950~59년 출생)는 한국전쟁과 전후복구기에 출생하여 각각 한국의 산업화과정 초기와 중기단계에서 결혼전이 시기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많았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결혼전이 시기로서, 일찍, 제때, 혹은 늦게의 결혼전이 시기 유형에서 결혼을 했는지 혹은 안했는지의 이분적(dichotomous)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 범주내에 결혼을 하면 1, 결혼을 하지 않으면 0인 선택대안을 하게 된다.

결혼전이시기 유형의 범주는 각 코호트의 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년도의 평균초혼연령을 기준으로 평균의 범위에 속하면 <제때>, 그 以前은 <일찍>, 평균의 범위 以後는 <늦게>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범주에 속하는 결혼연령은 코호트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1940년대 코호트는 17~20세 以前이 <일찍>의 범주에, 21~24세가 <제 때>에, 25~34세가 <늦게>의 범주에 속했다. 한편 1950년대 코호트는 15~21세, 22~24세, 25~31세가 각각의 범주에 속했다.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構造의 변인으로는 性比와 취업률, 家族변인으로는 父의 교육과 父의 직업, 부모의 생존여부, 출생순위,

가족주의 가치를, 個人的 변인으로는 교육수준과 결혼前 직업, 결혼前 취업年數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 가치는 개인의 욕구나 바람은 뒤로 미루고 가족의 욕구를 우선으로 하는 家族優先性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2. 연구문제 설정

〈연구문제 1〉 1940년대 코호트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1950년대 코호트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조사도구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는 센서스자료와 경제기획원 통계치, 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방형 질문형태의 개인생활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家族主義 尺度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작성, 수정된 옥선화(1986)의 가족주의 척도로서 그 중 家族優先性의 하위척도만을 채택한다. 이것은 총 5 문항으로 본 조사에서는 .70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1940~1959년 사이에 출생한 10년 단위의 2개 출생코호트의 여자로서 총 634명이 선정되었다. 결혼당시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표집이 되도록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중·소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리, 수원)에서 유의추출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그리고 코호트에 따라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과 그 영향력의 정도의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로짓스틱 maximum-likelihood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상의 자료분석은 SAS PC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論議

1. 1940년대 코호트의 결혼전이 시기 결정요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0년대 코호트에서 결혼을 〈일찍〉, 〈제때〉, 〈늦게〉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측력은 각각 89.6%, 81.9%, 92.4%로 매우 높아서 각 대안이 선택행동을 설명해 주는 효용계수의 유의성이 높다.

1940년대 코호트의 결혼전이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構造的 要因 중의 하나인 취업률은 결혼을 〈일찍〉이나 〈제 때〉하는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늦게〉 결혼하는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나이가 적은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취업률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취업률과 결혼가능성과의 관계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성장기에는 남성의 결혼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Mo-dell, 1978), 이것은 높은 취업률이 남성으로 하여금 결혼시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높은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의 낮은 결혼연령은 동시에 배우자관계에 있는 여성의 결혼연령도 낮추게 되므로, 취업률이 높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을 일찍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코호트가 위치한 사회경제구조의 맥락과 연계지어 이해할 때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여성취업률은 주로 경제구조상 값싼 노동력이 요구된 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성취업인구의 대부분이 저학력의 가난한 가정의 딸들이었다. 그들이 취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구조적

표 1. 1940년대 코호트의 결혼전이시기 선택확률의 로짓스틱 모형

변 인	일 적 (17-20세)		제 때 (21-24세)		늦 게 (25-34세)	
	Parameter	P-value	Parameter	P-value	Parameter	P-value
	Estimate		Estimate		Estimate	
교 육 수 준	-0.9415	0.0531	-0.0356	0.8730	0.5502	0.0678
직 업	-0.2789	0.5277	-0.0485	0.7791	-0.00520	0.9805
취 업 년 수	0.1079	0.6990	-0.0295	0.8007	0.0793	0.5654
父 의 교 육	0.5828	0.1673	-0.0495	0.8017	-0.1525	0.5359
父 의 직 업	0.4310	0.3253	-0.0659	0.7426	-0.1164	0.6378
부 모 생 존	0.6598	0.4992	-0.7485	0.1100	0.9539	0.0988
출 생 순 위	1.0204	0.2475	-0.7614*	0.0359	0.4438	0.3249
가 족 주 의	0.1554	0.7169	-0.3288	0.1421	0.8095**	0.0088
성 비	-0.0417	0.4517	0.00213	0.9466	-0.0341	0.4635
취 업 율	1.3716**	0.0032	0.5590***	0.0001	-0.9462***	0.0001
INTERCEPT	-17.8774	0.0363	1.6552	0.1521	8.8942	0.0663
fit of model(χ^2)	36.858***		77.119***		135.629***	
df	9		9		9	
예 측 력	89.6%		81.9%		92.4%	

*p<.05 **p<.01 ***p<.001

제약은 자연히 취업기간을 연장하면서 결혼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빚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취업률의 증가를 경제적 번영 정도를 가능하는 요인으로 보기에에는 어렵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업률이 결혼연령의 변화와 정적관계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이 코호트에서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영향을 주는 家族的인 要因으로는 출생순위와 가족주의 가치로서, 출생순위가 차녀이하인 경우에는 결혼을 일찍하거나 늦게할 가능성이 높고 장녀인 경우에는 제 때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딸들의 결혼전이시기에 있어서 순서를 지켜야한다는 문화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바라 하겠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을 <늦게> 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결혼연령규범보다 가족원조에 대한 규범이 더 우선시되었던 것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1940년대 코호트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과 산업화 초기의 빈곤과 혼란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이 불확실하였으며, 이런 상황

에서 가족주의 가치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한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결혼전이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40년대 코호트에서 개인적 특성들은 결혼전이 시기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950년대 코호트의 결혼전이 시기 결정요인

1950년대 코호트들의 결혼전이시기 선택확률을 추정하는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을 <일찍>하거나 <제때>, 그리고 <늦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형의 적합도도 유의미하고 예측력도 84.6%, 71.9%, 91.2%로 높게 나타났다.

1950년대 코호트의 경우, 社會構造的 要因인 性比는 결혼을 <일찍>하는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인구가 많을 때 나이가 어린 여성도 결혼시장에서 선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1950년대 코호트는 성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의 결혼가능성을 높여 주게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성의 결혼

표 2. 1950년대 코호트의 결혼전이시기 선택확률의 로지스틱 모형

변 인	일 짝 (15-21세)		제 때 (22-24세)		늦 게 (25-31세)	
	Parameter	P-value	Parameter	P-value	Parameter	P-value
	Estimate		Estimate		Estimate	
교 육 수 준	-0.9735**	0.0032	0.3432	0.0950	0.0583	0.8393
직 업	-0.2536	0.3584	0.1086	0.5367	0.0409	0.8726
취 업 년 수	-0.1138	0.5700	-0.1477	0.2546	0.4343*	0.0244
父 의 교 육	0.3268	0.2749	-0.2133	0.2661	0.1993	0.4620
父 의 직 업	0.6055	0.0733	0.1578	0.4416	-0.7404*	0.0143
부 모 생 존	-0.2756	0.7216	0.7465	0.2240	-1.3587	0.2254
출 생 순 위	0.2532	0.5965	-0.2371	0.4776	0.0594	0.9042
가 족 주 의	0.1813	0.5126	-0.2927	0.1289	0.4546	0.1387
성 비	0.2238***	0.0007	-0.0512	0.2966	-0.0599	0.3925
취 업 율	0.3965***	0.0003	0.1924***	0.0006	-0.6740***	0.0001
INTERCEPT	-23.6492	0.0005	4.7678	0.3354	4.6350	0.5119
fit of model(χ^2)	43.232***		27.228***		91.976***	
df	9		9		9	
예 측 력	84.6%		71.9%		91.2%	

*p<.05 **p<.01 ***p<.001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결정요인으로서의 취업률은 결혼을 <일찍>하거나 <제때>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늦게>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40년대 코호트와 동일한 방향으로서 같은 맥락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個人的 특성 중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교육수준은 낮을 수록 결혼을 <일찍>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년수는 결혼전이시기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결혼전에 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수록 결혼전이가 늦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이들 코호트에 와서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가 늘어 나고, 이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만혼경향을 조장한 것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여성취업률 증가는 주로 하위직종에 기인한 것으로, 이 직종에 오랫동안 다니는 여성은 저학력, 저연령으로 다른 계층의 딸들보다도 더 빨리 노동시장에 방출되어 더 늦게까지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다(조은, 1990). 그러므로 취업을 오래하고 있는 하류층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에서 또 다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고, 이것은 결혼前 아버지가 하위직에 종사했던 경우의 딸들이 만혼 경향이 짙게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V. 結 論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한국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코호트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1) 個人的요인으로서의 교육이 1940년대 코호트에서 결혼전이 시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적어도 산업화 초기에서는 교육제도가 결혼전이 시기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1950년대 코호트에 와서 여성의 고등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교를 마친 뒤에 결혼해야 한다는 규범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고, 이를 통해 결혼과 교육이 남성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경해, 1993a) 서로 같은 시간대에 놓여서 경쟁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연속코호트間에서도 여성의 생의 전이에 미치는 교육제도의 영향이 급격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1940년대 코호트에서 家族的 요인으로서의 출생순위는, 장녀인 경우에 결혼을 제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결혼전이에 있어서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문화적 규범이 이들 코호트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바라 하겠다. 한편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 때 결혼을 늦게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들 코호트만이 갖는 역사적 상황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전쟁과 산업화 초기의 빈곤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가족주의 가치가 강화되었고, 이것이 가정경제의 곤란이라는 가족의 상황과 연계되었을 때 자신의 생의 전이를 연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한편, 1950년대 코호트에 있어서 결혼전 자신이 위치했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직업이 하위층에 속할 때 딸들은 만혼의 경향이 강하고, 상위층의 부모 밑에서는 만혼의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모든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에는 결혼연령규범에 따르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생의 전이를 연기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코호트의 경우, 1950년대 코호트와 달리 아버지의 직업이 딸들의 결혼전이에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들의 아버지가 직업을 가졌던 시기인 근대화 以前의 직업 변이가 그다지 다양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1960, 70년대의 대외의존적인 산업화가 계층간의 불균형한 산업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같은 코호트에서도 한 개인이 속한 계층에 따라 결혼전이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산업화과정 속에서 사회구조의 변화가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기보다는 가족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코호트間的 비교도 코호트內에서의 여러 요인과의 관련맥락에서 분석될 때 보다 명확해지며 생애과정상에 미치는 역사적 변화와 개인의 생애사를 연계하는 가족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3) 산업화가 여성의 결혼전이에 미치는 직접적 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서의 취업률이 1940년대와 1950년대 연속코호트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흥미롭다. 산업화를 통해 여성의 취업률은 현저히 증가하였지만, 이로 인해 결혼전이가 연기되는 양상은 兩코호트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는 兩코호트가 결혼한 시기인 1960, 70년대 여성 취업률은 주로 저학력, 저연령, 저임금의 하위직종이 늘어난 것이고 구조적으로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여성노동력의 수요도 결혼전이에 직면했을 때 퇴직이 강요되었던 점을 미루어 여성의 자아성취나 자아실현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사료된다. 따라서 兩코호트가 직면한 산업화과정에서 비롯된 취업률의 상승은 여성의 생의 조건을 변화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하의 차별은 연속코호트에서 변화되지 않았음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결혼전이 행태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인 가족주의 가치와 남녀차별 의식 등이 저변에 굳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以上の 코호트間 비교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여성 생애과정의 역사적 변화를 한국 사회변동과의 상호관련 맥락에서 연계시켜 보는 연구들이 후속연구에서 보다 천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명혜(1988). 분단을 직접 경험한 가족연구—가족주의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2) 김유경(1990). 결혼율 및 초혼연령의 변동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우리나라인구 인구변동의 분석. 293-358.
- 3) 박경애(1993). 성비가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7(2), 153-166.
- 4) 서선희(1991a). 가족은 유용한 분석단위인가? 가족학논집 3, 55-68.
- 5) 양재모·김모임·공정자(1980). 결혼연령의 상관

- 요인과 이의 인구조절 정책으로서의 의의.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사리즈 2(pp.853-898), 한국가족계획연구원.
- 6)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청구논문.
 - 7) 이영훈(1980). 우리나라 부인의 결혼연령 변동과 출산력. 가족계획논집 4, 71-92.
 - 8) 이인수(1991). 가족연구에 있어서 라이프코스(life course) 접근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1.
 - 9) 조 은(1990). 도시 빈민 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여성한국사연구회(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 10) 조혜정(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 11) 최 순(1972).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초혼 양상. 가족계획연구 3, 70-77.
 - 12) 한경혜(1990a). *Social change, parental strategy and the timing of marriage of Korean 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13) 한경혜(1993a). 사회적시간과 한국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 생애과정관점과 구술생활사 방법의 연계 -. 한국사회학 27(4), 295-317.
 - 14) 한상진(1982). 한국 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15) Allen, K.R. & Pickett, R.S.(1987). Forgotten streams in the family life course : utilization of qualitative retrospective interviews in the analysis of lifelong single women's family car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517-526.
 - 16) Carlson, E.(1979). Family background, school, and early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41-353.
 - 17) Coony, M.T. & Hogan, D.P.(1991). Marriage in an institutionalized life course : first marriage among American men in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78-190.
 - 18) Elder, G.H., Jr.(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19) Elder, G.H., Jr.(1984). Families, kin and the life course. In D. R. Parke(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 20) Goldscheider, F.K. & Waite, L.J.(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91-109.
 - 21) Hareven, T.K.(1978b). *Transitions : The family and the life course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 Academic Press.
 - 22) Lawrence, B.S.(1988). New wrinkles in the theory of age : demography, norms, and performance rating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2), 309-337.
 - 23) Marini, M.M.(1978). The transition to adulthood : sex differenc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at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483-507.
 - 24) Mason, K.O., Mason, W.M., Winsborough, H.H. & Poole, W.K.(1973). Some methodological issues in cohort analysis of archiva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242-258
 - 25) Modell, J., Furstenberg, F.F. Jr. & Strong, D. (1978). The timing of marriage in the transitions to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120-150.
 - 26) Neugarten, B.L. & Hagestad, G.O.(1976). Age and the life course. In R.H. Binstock & Shanas(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NY : Academic
 - 27) Riley, M.W.(1973). Aging and cohort succession : Interpretations and misinterpret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 28) Ryder, N.(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853-861.
 - 29) Shehan, C.L.(1992). *Social change and women's roles : Using a life course framework to study work and family interconnections*. Preconference Workshop on Theory and Methods, National Conference Family Relations.
 - 30) Uhlenberg, P.(1979). Changing configurations of the life course. In T.K. Hareven (Ed.), *Transition*. NY : Academic Press.
 - 31) Waite, L.J. & Spitze, G.D.(1981). Young Women's transition to marriage. *Demography* 18, 681-694.